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 속에 그려진 한국*

李在聖**

aicham@cau.ac.kr

〈 目 次 〉

1. 머리말
2. 관동대지진 시의 조선인 학살과 가와바타
3. 가와바타의 '이즈물'에 등장하는 조선인
4. 최승희와 가와바타
5. 가와바타 문학에 그려진 종전 시의 조선인
6. 가와바타 문학에 그려진 한국전쟁
7. 가와바타 문학에 그려진 한국의 전통 춤
8. 맺음말

키워드 : 가와바타, 야스나리, 川端康成, 한국, 조선, 이미지

1. 머리말

1968년에 일본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1899-1972)는 『이즈의 무희(伊豆の踊子)』(1926), 『금수(禽獸)』(1933), 『설국(雪国)』(1935-1947), 『천 마리 학(千羽鶴)』(1949-1951), 『산울림(山の音)』(1949-1954), 『잠자는 미녀(眠れる美女)』(1960-1966), 『고도(古都)』(1962) 등의 수많은 작품을 통해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작가이다. 예민한 감성과 아름답고 풍부한 서정을 특징으로 하는 그는, 신감각파(新感覺派)의 대표 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세기에 이르는 오랜 작품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학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본 근대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에 관해 다년간 연구를 축적해온 최재철 교수는, “근대 일본의 대한관(對韓觀)은 기본적으로 일제 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업신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서 대체로 메이지(明治)시대 전기(1868-1880년대 무렵)의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개척자·施惠者로서의 단계에서, 메이지시대 중기(1890년대 전후)의 야심과 왜곡, 무시, 그리고 메이지시대 후기부터 다이쇼(大正)시대 전반(1900년대 초-1910년대)의 여유와 風景의 발견 단계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멸시와 우월의식의 표출에서 한국의 미의 발견과 호감, 동정, 애착, 적극적인 한국 옹호, 반성 등으로 바뀌어 왔다고 볼 수 있다.”¹⁾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와바타의 문학 속에는 과연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이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가와바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라서만도 아니고, 그가 감각적 이미지와 세밀한 묘사로 정평이 난 작가라서도 아니다. 그의 일본적 전통에 대한 애착의 정도를 실감할 수 있는 「아름다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 인문사회분야지원 일반연구 프로젝트인 ‘한국전쟁 후 미국과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의 표상체계와 한국문학에 나타난 미국과 일본의 표상체계 대비연구’(연구책임자 : 박명진)의 지원 하에 집필되었다.

** 중앙대학교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최재철 「日本近代文学者の韓国觀の变化過程」 『日本学報』 제53집, 韓国日本学会, 2002.12

운 일본의 나(美しい日本の私)」²⁾ 같은 것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일본적인 작가’의 한 사람이라는 점과, 근대와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반세기에 이르는 왕성한 작품 활동의 폭이 대표성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한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시선을 보인 프롤레타리아 문학자들과는 달리, 일본적인 전통과, 사상과 감각을 바탕으로 순수 예술을 지향한 작가였다고 하는 점이 또한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취지하에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실생활과 문학에 비친 한국·조선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 관동대지진 시의 조선인 학살과 가와바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58분44초, 일본 간토(關東) 지방을 강타한 매그니튜드 7.9의 대지진은 그때까지 일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대재앙을 가져왔다. 일본 통계국의 집계에 의하면, 9만9300명이 사망하고 4만3500명이 행방불명됐으며, 가옥 25만 채가 파괴되고 44만 7100채가 불에 탔다. 특히 도쿄는 피해가 심해 10만75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도시의 4분의 3이 잿더미가 됐다.

방송과 신문마저 중단되자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실인 양 떠돌아다녔다. “후지산이 폭발했다.” “오가사와라 제도가 바다 속에 잠겼다.” 등등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그들을 더욱 흥분시켰던 것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다”는 괴소문이었다. 이 때문에 일본도와 죽창으로 무장한 자경단이 각지에 조직돼 통행인을 검문했다.

그런가 하면, ‘15엔 15전(15円15銭)’과 ‘괴피푸페포(ばびふぽぽ)’를 발음하게 하거나 ‘교육칙어(教育勅語)’를 암송시켜 조선인으로 보이면 칼과 죽창을 마구 휘둘렀다. 내무성에서 지방에 내려 보낸 ‘불온한 조선인(不逞鮮人) 단속’ 공문으로 군대와 경찰까지 동원되어 학살을 부추겼다. 공식 발표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6400명의 조선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다.

프롤레타리아 작가 미야자마 스케오(宮島資夫; 1886-1851)는 이와 같은 사태를 소재로 한 「진위(眞偽)」라는 제하의 소설에서, “불온한 조선인 운운하는 침소봉대의 유언비어를 믿고, 살벌하게 경계하고 있는 야경 대기소(不逞鮮人云々の針小棒大の流言を信じて、物々しく警戒してゐる夜警詰所)”를 비판하며, 시모노세키행(下関行) 열차 안을 배경으로, 늙은 병자에게 불친절한 일본인 승객들과는 대조적인 4명의 조선인 승객의 친절한 행동을 그려냈다.

가와바타는 「창작비평 12월(創作批評十二月)」³⁾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소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들—네 명의 조선인—의 얼굴은 여전히 본래대로 무표정했다. 그렇지만 그 깊은 속에서부터 빛이 뿜어나는 듯한 눈을 마주쳤을 때, 아마노는 자신도 모르게 화들짝 놀랐다. 이상한 빛을 밑바닥에 감추고 있는 듯한 그 눈 속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허풍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비통의 눈물을 감추고 있는 듯이 보이지도 않고, 비웃음의 기색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저 어디까지나 인종에 견디고 또 견디며 살아와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숨기며 키워온, 밑바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차갑고 무관심한 묘한 빛 속에, 뭔가 무서운 힘이 감추어져 있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 눈빛을, 좀더 잘 생각

2) 가와바타가 1968년 12월 12일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행한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강연을 위해 집필한 원고로, 전후의 가와바타의 예술관이나 인생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1968년 12월 16일자 ‘朝日’ ‘毎日’ ‘読売’ ‘中日’ 등 일본의 각 주요 신문에 게재되었고, 이듬해 3월, 사이넨스티커의 영역을 덧붙여 講談社現代新書 『美しい日本の私—その序説』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3) 初出不明. 『文芸年鑑』 1924年版에 수록.

해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아마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눈빛을 야경을 돌 때의 단장에게라도 보여준다면, ……” 하고 작자는 말미에 적고 있다. 비범한 걸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집어 내야 할 것과 집어낸 것의 의미를, 작자는 잊지 않았다. 짧은 작품이면서도, 크게 웅변하고 있다. 이번 달의 읽을 만한 작품이다.⁴⁾

관동대지진 시의 조선인 대량 학살이 아무리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혼란에 빠져 이성을 잃은 히스 테릭한 일본인 군중들이 저지른 일이라지만, 그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임이 자명하다.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고, 미야지마 같은 작가는 그것을 소설 속에 담아 일본이 덮어두고 싶었던 진실을 말하려 했다.

가와바타의 작가적 양심이 그러한 미야지마의 용기에 크게 공감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라 하겠다.

3. 가와바타의 ‘이즈물(伊豆もの)’에 등장하는 조선인

가와바타는 만 19세 때인 1918년에 처음 이즈(伊豆)로 여행을 가 그곳에서 유랑 예인(芸人) 무리와 길동무가 되었고, 이때의 체험이 훗날 『伊豆の踊子』 등으로 작품화되기도 했다. 이후, 도합해서 거의 10여년을 이즈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런 연유로 그의 초기 작품에는 소위 ‘이즈물(伊豆物)’이라 불리는, 이즈 지방을 주 배경으로 하는 일련의 작품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선인이 묘사되거나 등장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

예컨대, 조선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기행수필 『이즈 처녀(伊豆のむすめ)』와 단편소설 『온천장(温泉宿)』, ‘조선인’이 등장하는 손바닥소설(掌の小説)⁵⁾ 『바다(海)』와, 조선인을 중심 소재로 삼은 단편 소설 『사자의 서(死者の書)』 등이 그것이다.

먼저 수필 「이즈 아가씨(伊豆の娘)」(1925년8월 「婦人公論」)에서 조선인이 언급된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또, 이번 겨울쯤에는, 조선 옛장수가 어찌 된 일인지 많이 들어와, 마을에 집을 빌려 옛장수들끼리 살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흰 고쟁이를 입은 조선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너편 집에 마을 여자들이 줄지어 흰 고쟁이를 입은 여자로부터 조선어 몇 마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인 것입니다.⁶⁾

가와바타는 일본 여자들이 이처럼 용기종기 모여 조선 여자로부터 조선말을 배우는 모습을 두고, 여자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주 재미있다(女達の何気ない物の受け入れ方は、非常に面白い)고 덧붙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편견이나 차별

4) 「彼等——四人の朝鮮人のこと——の顔は依然としてものやうに無表情な色をしてゐた。けれどもその底光りのするやうな眼に出合つた時、山野は思はず、はつとした。不思議な光を底にひそめてゐるやうなその眼の中には、憤怒の炎が燃え上がつてゐるのでもなければ、偽善の誇りを蓄へてゐるのでもない。悲痛の涙を隠してゐるとも見えなければ、嘲笑の色を湛へてゐるやうな風でもなかつた。けれどもただどこまでも忍従に堪へて堪へ過して、自分の心の中にある感情を隠しおぼせた底の方から流れて来る冷たい無関心な不思議な光の中に、何か恐ろしい力が秘められてあるやうに彼には思はれた。『あの眼の光りを、もつとよく考へてみなけりやならないのだ』山野は思はず心につぶやいた。そして、あの眼の光を夜警の時の団長にでも見せてやつたら、……」と、作者は末尾に書いてゐる。非凡な傑作とも思はないが、掴むべきものと、掴んだものの意味とを、作者は忘れなかつた。小さい作品に、大きくものを云わせた。今月では読むべき作品である。

5) 가와바타가 초기에 주로 쓴, 서양의 콩트와 비슷한 100여 편의 초 단편 소설들을 지칭하는 말. 손바닥이라는 말 그대로 문고판 서너 쪽 분량의 극히 짧막한 줄거리지만 그 하나하나가 완결성이 돋보이는 소품들이다.

6)それからまた、この冬の頃には、朝鮮の飴屋かどしたものが沢山入り込んで来て、村に家を借りて飴屋ばかりで住んでゐたことがありました。小川で白い袴の朝鮮の女が洗濯をしてゐます。街道の向う側の家に村の女達が並んで白い袴の女から朝鮮語の片言を習つてゐます。それかいかにも何気ない表情なんです。

의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흥미롭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다(海)」(1925년11월 「文芸時代」)7)는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의 제목이 ‘조선인’이었던 만큼, 조선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7월의 하얀 산길을 조선인 무리가 이주해 간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즈음에는 이미 모두가 무척 지쳐 있었다. //그들은 산을 넘어가기 위한 길을 만들었다. 70명 정도의 노동자가 3년 동안 일하면 새로운 길이 언덕까지 펼쳐졌다. 언덕 저편은 하청업자가 달려서 일을 시켜주지 않았다.8)

그리고 다음은, 젊은 노동자 한 사람이 열 여서 일곱 살쯤 되는 조선 아가씨와 나누는 대화이다.

“나는 일부러 맨 뒤에 남아 그 여자와의 이별이 아쉬워서 온 거라구.”//“그래? 내가 끌어안고 가주지. 나랑 부부가 되자.”//“싫어요. —아버지가 말했어. 내가 죽음을 당한 이 땅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일본에 와 있는 녀석과는 결혼하지 말고 조선에 돌아가서 시집가라고.”//“흐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좀 보라구.”//“이거 말이에요?”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아가씨는 가을 풀잎 무늬의 너털너털한 옷을 보았다.9)

「온천장(温泉宿)」(1929-30년) 역시 조선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소설로, 다음과 같은 묘사가 이루어져 있다.

조선인 노동자 무리가 이주해 왔다.//“비켜요, 비켜. 냄비랑 솥이랑—들고 가니까” 라며, 오키누는 아낙네들 방으로 달려왔다. 주름투성이인 흰 고쟁이에 버선을 신은 조선 여자들은, 세간 도구인 커다란 보자기 꾸러미를 짊어지고 등을 둥그렇게 굽힌 자세로 걸고 있었다.10)

“조선인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오유키는 그녀들의 장식이기도 한 빗자루를 바닥에 끌며 갔다. 온천 여관 문 앞의 빈집을 빌려, 그들이 합숙하고 있는 것이다. 맹장지나 문풍지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농가다. 온천 여관의 뜰 청소 시간에, 그곳 여자들은 우물가에 흰 하카마를 부풀려, 아침 식사에 사용한 식기를 씻고 있다.11)

이러한 내용에서 보듯이, 가와바타는 조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초와 차별받는 처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을 증오심을 냉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차별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묘사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사자의 글(死者の書)」(1928년5월 「文芸春秋」)이라는 소설은, 바닷가 온천지에 “조선요리집(朝鮮料理屋)”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조선 소녀들이 매춘을 하는 여인숙을 무대로 하고 있는데, 아키코(秋子, 18세), 기쿠코(菊子, 19세), 치요코(千代子, 16세) 등의 조선 어린 소녀들이 등장한다.

7) 처음 발표 시의 제목은 ‘조선인(朝鮮人)’이었는데, ‘제2단편집(第二短篇集)’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십년(二十年)」 「유리(硝子)」 「오노부 지장보살(お信地藏)」 「미끄럼 바위(滑り岩)」와 함께 전후의 16권 전집에 수록할 때 ‘바다(海)’라고 제목을 바꾸었다.

8) 七月の白い山路を朝鮮人の一隊が移住して行く。海が見え出した頃にはもう皆が可成り疲れてゐた。//彼等は山を越える路を作つた。七十人ばかりの土方が三年働くと新しい路が峠まで開けた。峠の向うは請負師がちがふので働かせてもらへなかつた。

9) 「俺はわざと一番後へ残つてあの女と別れを惜しんで来たんだ。」// 「さうか。俺が抱いて行つてやる。俺と夫婦になれ。」/ 「いやです。—父が言つた。俺が殺された土の上で結婚するな。内地に来てゐる奴のお嫁になるな。朝鮮へ歸つてお嫁に行け。」/ 「ふん。だからお前の父はあんな死なな。お前の着物を見ろ。」/ 「これかい。」とつむぎながら娘は秋草模様の湯推子を見た。

10) 朝鮮人の土工の一隊が移住してきた。// 「ちよいと、ちよいと、鍋も釜も一持つて歩いてるわよ。」と、お絹は女中部屋へ走つてきた。// 黴だらけの白い袴に、布の靴を履いた朝鮮の女達は、世帯道具の大きい風呂敷包を負つて、背を円めながら歩いてゐた。

11) 朝鮮人の女達の声の方へ、お雪は彼女の裝飾でもある箒を曳きずつて行つた。温泉宿の門前の空き家を借りて、彼等が合宿してゐるのだ。襖や障子は一枚もなくなつてしまつた百姓家だ。温泉宿の庭掃除の時間に、その女達は井戸端に白い袴を膨らませて、朝の食器を洗つてゐる。

가와바타는,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조선의 어린 소녀 치요코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방금 사로잡힌 새끼 표범 같은(捕まつたばかり)の豹の子供のやう)” “신선한 눈(新鮮な眼)”, “대추알처럼 신선한 턱(棗のやうに新鮮な顎)” 등으로 매우 호의적인 시선을 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요코가 부르는 조선의 “가늘고 아득한 순례의 노래처럼 슬픈 가락(細々と遠い順礼歌のやうに哀れな調べ)”을 들으며, 그(彼)는 간사이(関西) 지방 서른 세 곳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西国巡礼)가 지나는 고향을 떠올렸다고까지 적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음과 같은 묘사도 눈에 들어온다.

치요코는 양손을 잠자리처럼 벌리고 느릿하게 어깨를 번드치며 춤추었다. 깊은 산속 집의 봉오도리의 단조였다. 작은 입술을 짝 다물고, 올곧은 볼에서는 들의 냄새가 느껴졌다. 발놀림만은 헝가리의 농가 아가씨가 옛날 풍으로 느긋하게 추고 있는 목가 같았다. 누에콩 잎을 빨아 피리소리를 내던 소녀를, 그는 다시 떠올렸다.¹²⁾

이처럼, 조선의 전통이 담긴 노래와 춤에 대한 소설 속 그(彼)의 감상은, 차별을 넘어 공감과 향수와 동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머리카락(髮)」(1924), 「흰 꽃(白い花)」(1924), 「마구간 집 미인(馬美人)」(1927), 「고향(故郷)」(1928), 「일본인 안나(日本人アンナ)」(1929), 「수유나무 도둑(胡頹子盗人)」(1925), 「온천지에서의 일(温泉場の事)」(1926), 「아름다운 묘(美しき墓)」(1929) 등의 작품에서 조선인들의 모습이 등장하며, 가와바타는 이들 작품에서도 전반적으로 차별적인 시선이 배제된 객관적인 시각에서, 과거에 얽매지지 않고 곳곳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4. 최승희(崔承喜)와 가와바타

가와바타가 무용에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레뷰 극장 카지노 포리(カジノ・フォーリー)의 무희였던 우메조노 류코(梅園竜子)가 영화배우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가와바타의 든든한 후원 덕택이었다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가와바타에게 있어서 조선 출신의 무희 최승희(崔承喜)의 춤은 매우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최승희는 1926년 16세로 일본에 건너가 이시이 바쿠(石井漠) 문하에 입문하여 춤을 배우고, 3년 후 경성(京城)으로 돌아왔다가, 1933년 봄에 다시 일본으로 갔고, 같은 해 가을과 이듬해 가을에 무용 발표회를 가졌다.

가와바타는 「조선의 무희 최승희(朝鮮の舞姫崔承喜)」(1934년 11월 「文芸」)에서, 최승희를 이렇게 평가했다.

여류 신진 무용가 중 일본 제일은 누구냐고 묻기에// 나는 아무 주저 없이 최승희가 일본 제일이라고 대답했다.// 무엇보다 훌륭한 체구이다. 그녀의 춤의 스케일이다. 힘이다. 게다가 한창 춤이 무르익은 나이이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물씬 풍기는 민족의 향기이다.¹³⁾

12) 千代子は両手をとんぼのやうに開いてゆるやかに肩を翻しながら踊った。深い山家の盆踊りの単調だった。小さい唇をきゅつと結んで、生真面目な顔から野の匂ひが流れて来た。足さばきだけはハンガリヤの百姓娘が昔風にのんびり踊つてゐる牧歌だった。蚕豆の葉を吸つて鳴らした少女を、彼はまた思ひ出した。

13) 女流新進舞踊家中の日本一は誰かと聞かれ//私はなんの躊躇もなく、崔承喜が日本一であると答へた。/第一に立派な体軀である。彼女の

그렇지만 김무, 예혜야 노아라, 승무 등의 조선무용을 추면,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활달하고, 자유롭고, 능숙하고, 편안하게 우리들을 사로잡는다. 비평 풍의 말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최승희의 조선무용은, 일본의 서양 무용가들에게 민족의 전통에 뿌리를 둔 강인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¹⁴⁾

최승희의 춤을 본 가와바타는, 최승희의 조선과 관계없는 무용에 대해서는 “미완성의 정열(未完成の情熱)”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선 민족의 전통에 뿌리를 둔 무용에 대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5. 가와바타 문학에 그려진 종전 시의 조선인

종전 직후에 집필된 소설 「재회(再會)」(1946년 2월 「世界」, 1946년 6월 「文芸春秋」)에는 귀국을 하기 위해 기차역에서 진을 치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귀국을 위해 기차를 기다리는 조선인의 무리도 유조는 이곳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플랫폼 홈에 줄지어 서서 기다리기에 너무 긴 시간이라서, 계단 밑에 진을 치고 기다리는 듯했다. 집에 기대서, 더러워진 천이나 이불을 깔고, 통로에 가득 차 있었다. 냄비나 버킷 같은 것을 끈으로 묶은 짐도 있었다. 밤새도록 그렇게 있는 적도 있는 듯했다. 가족 단위가 많았다. 아이들은 일본인과 구별이 가지 않았다. 조선인 아내가 된 일본인 여자도 섞여 있을 것이다. 새 한복의 흰색 차림이나 분홍색 상의가 금방 눈에 띄게 보일 때도 있었다./ 새로 독립한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난민처럼 보이고,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도 적지 않은 듯했다.¹⁵⁾

담담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듯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고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치게 만드는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가와바타 문학에 그려진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집필된 「무희(舞姬)」(1950년12월26일-1951년3월3일 「朝日新聞」 연재)에서는 등장인물 간에 여러 차례 최승희와 그 딸에 관한 대화가 오간다.

중국 공산군이 20만 이상 국경을 넘어 한국에 들어와 국제연합군이 총퇴각을 시작하고 11월 28일 맥아더 사령관은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여, 한국 전란이 급속히 종결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희망은 드디어 무너지고 말았다.”고 성명을 했다. 그 사,오 일 전에는 국련군이 국경 가까이까지 육박하여 최후의 총공격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형세는 갑자기 역전되었다. 미국 대통령은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한국의 새로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중공군에 대해서 원자폭탄의 사용을 고려중이다.” 라고 말했다. 영국 수상은 미국에 건너가서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했다.¹⁶⁾ (「잠에서 깨어나(寢ざめ目ざめ)」)

踊の大きさである。力である。それに踊りざかりの年齢である。また彼女一人にいちぢるしい民族の匂ひである。

14) ところが「剣の踊」「エヘヤ・ノアラ」「僧の舞」などの朝鮮舞踊になると、彼女は別人のやうに暢達で、自由で、器用で、楽々と私達をとらえる。批評めいた言葉はまたのことし、崔承喜の朝鮮舞踊は、日本の洋舞踊家へ民族の伝統に根ざす強さを教へてゐる、と見る事が出来る。

15) 帰国の汽車を待つ朝鮮人の群も祐三はここで度々見かけた。ホームへ行列しては待てない長時間なので、階段の下に屯して待つらしかつた。荷物もたれ、よごれた布や蒲団を敷いて、通路こづつまつてゐた。鍋やバケツの類を縄でしばつた荷物もあつた。夜通しざしてゐることもあつたらしかつた。家族づれがおおかつた。子供達は日本人と区別がつきにくかつた。朝鮮人の妻になつた日本の女もまじつてゐるのだらう。新しい朝鮮服の白い姿や桃色の上着が目立つてゐる時もあつた。/新に独立した祖国へ帰る人達だが、難民のやうに見え、戦災者も少なくない様子だつた。

16) 中国共産軍が、二十万の上、国境を越えて、朝鮮にはいり、国際連合軍が、総退却をはじめて、十一月二十八日、マツカアサア司令官

“조선의 최승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그 사람도 혁명의 자식이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북한에
가 있었다고 하니, 혁명의 아버지인지도 모르죠. 최승희의 첫 번째 무용회를 제가 본 것은 타마라 트라노바
가 상하이에서 안나 파블로바의 무용을 본 것과 거의 같은 나이겠죠.”/“그렇구나. 그게 아마 1934년인가 35년
이었지. 엄마는 놀랐었어. 조선민족의 반역과 분노가 말없는 무용에 느껴져서 말이야. 더듬는 듯한, 허우적거
리는 듯한, 거칠고도 격한 춤이라서…….”17) (「겨울 호수(冬の湖)」)

위 인용문은 나미코(波子)와 그녀의 딸 시나코(品子)의 대화 내용인데, 두 사람 모두 최승희의 안
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뒤에도 비슷한 대화가 이어진다.

“어머나, 그 애가……?”/날염 무늬의 긴소매 옷을 입고, 키 크고 호리호리한, 열 살 정도의 소녀가 나미코의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무용회장의 복도 같은 데서 가끔 볼 수 있었다. 그 애의 접어 올린 소매가 눈에 떠올
랐다. 얇은 화장을 하고 있었지 아마……./ “귀여운 아이였는데, 그렇죠? 이제 시나코 정도의 나이겠네요. 공
산군의 여군으로……? 전선에 위문(공연)을 갔다가……?”/하고 말하면서도, 역시 날염 무늬 옷을 입고 있던
소녀로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최승희는 한때 만주로 피난을 갔던 모양입니다. 북한의 국회의원이니까요.
무용학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만…….”/“그래요? 일전에도 시나코랑 최승희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여자 아이
가 전사했다구요?”/나미코는 좌석에 앉아서도 그 소녀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나미코 자신의 설레
임과 한 덩어리가 되는 것 같았다.18) (「사랑의 힘(愛する力)」)

위의 인용문은 나미코와 그 애인 누마타(沼田)의 대화 내용인데, 여기서 “그 여자 아이”란 최승희
의 딸을 지칭하며, 등장인물 대부분인 최승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가와바타 문학에 그려진 한국의 전통 춤

「고도(古都)」(1961년10월8일-1962년1월23일 「朝日新聞」 연재)는 신문 연재소설 형식으로 집필되었
으며,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한 연중행사가 병풍처럼 하나하나 펼쳐지고 교토 각지의 명승고적 안내
기 같은 성격을 띠어, 가와바타와 일본적 전통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런 작품 속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닌나지 절문을 들어가니, 왼편의 벚꽃나무 숲 또는 벚꽃 꽃밭은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난만하게 피어 있다/
그러나 다키치로는 “와야, 이건 아냐” 하고 말했다./벚꽃나무 숲길에 커다란 접이식 걸상을 늘어놓고, 마셔라
불러라 하며 소란스럽다. 난잡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시골 할머니들이 쾌활하게 춤을 추고 있는가 하면, 술에
취해 코를 드르렁거리며 골던 남자가 걸상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골치 아프게 되어 버렸군.” 하며 다키
치로는 정나미가 떨어지는 듯이 멈춰 섰다./“어디 조용한 곳으로 피합시다. 응, 여보.” 하고 다키치로는 말했
다./돌아서려고 하는데, 벚꽃나무 숲 반대편의, 키 큰 소나무 밑 걸상에서, 예닐곱 명의 조선 여자들이, 한복
차림에 조선 장구를 치면서 조선 춤을 추고 있었다. 훨씬 이쪽에 우아한 풍취가 있었다. 소나무의 녹음 사이

は、「われわれは、まつたく新しい戦争に直面して」、「朝鮮戦乱が急速に終結すると考へてゐた願望は、遂に打ち砕かれてしまつた。」と
声明した。その四五日前には、国連軍が、国境近くまで迫つて、最後の総攻撃こうつらうとしてゐたのだつた。形勢はたちまち逆転した。アメリ
カ大統領は、十一月三十日、記者会見で、「政府は朝鮮の新たな危機に処するため、必要とあらば、中共軍に対して、原子爆弾の使用
を考慮中だ。」と語つた。イギリス首相は、アメリカに渡つて、大統領と会谈すると言つた。(「寝ざめ目ざめ」)

17) 「朝鮮의 崔承喜は、どしてゐるでせうね。」// 「あの人も、革命の子ね。朝鮮の戦争がおこる前に、北鮮へ行つてゐたといふから、革命の
親かも知れないわ。」 (「冬の湖」)

18) 「まあ、あの子が……?」/友禅模様の長いそでを着て、背高な細身の、十歳ばかりの少女が、波子に思ひ出された。舞踊会の廊下など
で、ときを見かけた。その子の肩あげが、目に浮かんで来た。薄い化粧をしてゐたかしら……。/「可愛い子供だつたけれど、さうね。もう品
子ぐらゐの年でせうね。共産軍の女兵……? 踊りで、前線へ慰問に出て……?」/と言ひながら、やはり、友禅の女の子とか思へない。
「崔承喜は、一時、満州へ逃げたさうです。北鮮の国会議員ですから。舞踊学校を、やつてるといふことでしたが。/「さう? このあひ
だも、品子と、崔承喜の話をしたところよ。あの女の子が、戦死したんです?」/波子は座席についてからも、少女の姿が消えなかつた。そ
れが波子自身の胸騒ぎと、一つになるやうだつた。」 (「愛する力」)

로, 산 벚꽃도 살짝 엿보이고 있었다。」¹⁹⁾

닌나지에 벚꽃놀이를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위 인용문을 보면, 난잡하고 시끌벅적한 일본인 벚꽃 놀이 객들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의 여인네들이 한복을 입고 장구를 치며 전통적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우아한 풍취”로 포착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8.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를 믿는 어리석고 냉혹한 일본인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본인의 모습을 증요하는 일본인도 결코 적지 않았다. 미야지마 스케오의 「진위(真偽)」를 높이 평가하는 가와바타도 그런 한 사람이었다.

가와바타가 작품 속에 간간이 그리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겸손하고, 참을성이 많다. 그런 것들은, 난폭하거나, 겸손하지 못하거나 한 일본인들과 대비하는 형태로 묘사되는 케이스가 많다. 「古都」에서는 난잡하고 시끌벅적한 일본인 벚꽃 놀이 객들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의 여인네들의 우아한 모습이 포착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조선인들의 차별받는 위치도, 그 고뇌까지도 냉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작품 「死者の書」에는, 그 못생긴(不器量な) 조선 아가씨도 등장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인, 신선하고 활발하며 가련한 조선 아가씨가 등장하며, 그 아가씨에 대한 주인공의, 간절할 정도의 동경이 잘 묘사되어 있으며, 조선의 민요가 인용되고, 그에 대한 가와바타의 혼의 향수(魂の郷愁)가 표현되어 있다.

조선의 무회 최승희의 무대를 본 가와바타는 주저 없이 “일본 제일”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그녀의 춤이 일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조선 민족의 고뇌를 가장 예리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작품 「바다(海)」에서, 가와바타는 조선인을 타자로 보는 차별적 시점을 배제함과 동시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요컨대, 가와바타는 한국·조선에 특히 깊게 관여된 것은 없지만, 출발 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 속에 간간이 그려 넣었고, 또 조선민족의 고뇌를 배려하고, 한국·조선의 상황이나 역사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 仁和寺の山門をいつた、左手の桜の林、(あるひはさくら畑)は、たわわに咲きあふれてゐる。しかし、太吉郎は、「わあ、こらかなはん。」と言つた。/桜林の路に、大きい床几をならべて、飲めや歌への騒ぎである。狼藉である。田舎のばあさんたちが、陽気に踊つてゐるのもあるが、男が酔つて大いびきをかき、床几からころげ落ちるものもある。/「えらいことになつてもてるのやなあ。」と、太吉郎はなげなげに立つた。//「どつか、静かなとこへ逃げよ。なあ、しげ。」と、太吉郎は言つた。/帰らうとすると、桜の林の反対の、高い松の木の下で、朝鮮の六七人の女たちが、朝鮮の服で、朝鮮の太鼓をたたいて、朝鮮の踊りを踊つてゐた。よほど、この方のみやびた風情があつた。松のみどりのあひげに、山桜のそいでゐた。

〈参考文献〉

- 金石範外 「在日朝鮮人文学」 『座談会 昭和文学史第五巻』 集英社, 2004
김태준편 『일본문학에 나타난 한국 및 한국인상』 동국대출판부, 2004
朴春日 『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朝鮮像』 未来社, 1969
林盛圭 「川端康成における韓国像—「海」を中心にして—」 『鷗外・康成・鱒二—長谷川泉セミナー論文集』 国学院大学日本文学第九研究室, 1994.10
崔在喆 「日本文学の中の韓国像」 『日本文化研究』 第2号、韓國外語大, 1986.8
—— 『일본문학의 이해』 민음사, 1997
—— 「日本近代文学者の韓国觀の变化過程」 『日本学報』 제53집, 韓國日本学会, 2002.12
小林一郎 『川端康成研究—東洋的な世界—』 明治書院, 1982
河野基樹 「「海」のポリテクス—イデオロギーの言葉で語るということへの嫌悪—」 『川端文学への視界9』 教育出版センター, 1994.6
長谷川泉 『川端康成論考』 明治書院, 1984
羽鳥徹哉編 『〈日本文学研究資料新集27〉 川端康成 日本の美学』 有精堂, 1990
『川端康成全集』 全37巻, 新潮社, 1980.2~1984.5
『川端康成—現代のエスプリ』 至文堂, 1970
『文芸読本 川端康成』 河出書房新社, 1977
登尾豊 「川端康成における〈日本〉」 『現代国語研究シリーズ12 川端康成』 尚学図書, 1982

접 수 일 : 1월 31일

심사완료 : 2월 10일

게재결정 : 2월 13일

〈要旨〉

本稿では、川端康成文学のなかに描かれた韓国・朝鮮に向けての視線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した結果、次のような結論に到達した。

まず、関東大震災の時、朝鮮人暴動の流言を信じる愚かで冷酷な日本人が多数発生したが、一方ではそういう日本人のあり方を憎む日本人も決して少なくなかった。宮島資夫の「真偽」を高く評価した川端もそのような一人だった。しかも、日本社会で差別を受ける朝鮮人達の立場も、冷静に見通した川端は、朝鮮人を他者として見る差別的視点を排し、過去に執着せず、現在に立ち向かっていく生き方を提示した。

そして、川端が作中に点景として描いた朝鮮の人達の姿は、概して、物静かで、慎み深く、我慢強い。しかも、それらは、乱暴だったり、慎みを欠いたりする日本人達と対比する形で書かれることが多い。「死者の書」には、新鮮で活発で可憐な朝鮮の娘が登場し、その娘に対する主人公の、切ないまでの憧憬が描き込まれている。しかも、朝鮮の民謡が引用され、それに対する川端の魂の郷愁が表現されている。

また、朝鮮の舞姫崔承喜の舞台を見た川端は、ためらわずに「日本一」との折り紙を付けたが、それは彼女の踊りが日本化されていたからではなく、朝鮮民族の苦悩を最も鋭く表現していると見たからである。

ようするに、川端は朝鮮・韓国に特に深く関わったということはないが、出発の頃から晩年に至るまで、折に触れて、目に映る朝鮮の人達の姿を作品の中に点景として描き、また朝鮮民族の苦悩を思いやり、朝鮮・韓国状況や歴史はやはり無視できないものとして認識していた。